



토트넘의 손흥민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 재경기 중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동 걸린 손흥민, 한 시즌 최다골 넘어설까

잉글랜드 FA컵 사우샘프턴전 결승골... 3-2 승리 견인
개인 통산 5번째 '4경기 연속골'... 최다골 사냥 청신호

다시 일어난 손흥민(28·토트넘)의 질주가 매섭다. 개인 한 시즌 최다 21골 돌파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사우샘프턴과의 2019-2020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 재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42분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려 토트넘을 3-2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노리치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부터 4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14호 골을 기록했다. 데뷔 시즌인 2015-2016시즌 8골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이후 매 시즌 20골을 넘나들었다.

최고의 시즌은 2016-2017시즌이었다. 정규리그 14골, FA컵 6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골로 총 21골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꾸준히 성장했으나 공격수의 절대적 지표인 득점에서는 2016-2017시즌의 성과를 넘어서지 못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손흥민을 향한 팬들의 기대는 컸다. 지난 시즌과 달리 참가해야 할 A매치 대회가 없어 소속팀에 집중할 수 있는 시즌이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펄펄 날았다. 지난해 12월 8일 번리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전 세계를놀라게 한 '70여m 질주 슈퍼골'로 시즌 10호골 고지를 찍었다. 손흥민은 번리전 이후 거지말처럼 골 침묵에 빠져들었다. 퇴장으로 인한 출전 정지 기간을 포함해, 한 달 반 동안 무득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3일 노리치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했다. 힘들게 재가동한 득점포는 좀처럼 멈출 줄 몰랐다. 사흘 뒤 사우샘프턴과의 FA컵 32강전과 지난 3일 맨체스터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 연달아 골이 터졌다. 몰아치기에 능한 손흥민의 최다 연속골 기록은 4경기다. 이번까지 다섯 차례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바 있다. 부진을 완전히 털어낸 손흥민이 지금의 득점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개인 한 시즌 최다 21골 기록을 넘어서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리그에서 13경기를 남겨둔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6강 1, 2차전을 앞두고 있다. 이날 손흥민의 결승골로 FA컵 16강에 올라 토트넘은 최소 16경기를 더 치른다. '주포'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시즌 막바지까지 쉬어야 해 손흥민에게 계속 선발 출전 기회가 주어질 보인다. 또 손흥민의 맹활약 속에 토트넘은 6경기 무패(4승 2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어 골 찬스는 많아질 전망이다. 손흥민이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다. 어느 때보다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올 시즌, 2020년의 손흥민이 2017년의 손흥민을 넘어설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략적 승점 관리로 1부 리그 승격"

김현희 신임 단장 간담회
도민과 소통 강화도 약속

이라고 했다.
2020시즌을 K리그2에서 보내게 된 제주로선 관중 수를 늘리는 것도 과제다. 김 단장은 그 해법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꼽았다.



"제주에 있는 유일한 프로구단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를 새로 이끌게 된 김현희(45·사진) 신임 단장이 말했다. 김 단장은 6일 제주도체육회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프로축구 1부리그(K리그1) 승격은 물론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갔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올해 목표는 단연 1부리그 승격이다. 창단 이래 처음으로 K리그2(2부리그)로 강등된 아픔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각오다. 김 단장 역시 "전략적으로 승점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제주의 남기일 감독은 본인만의 축구 철학이 뚜렷하고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부리그에 있던 팀을 두 번이나 승격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그 운영 체계를 잘 알죠. 경기는 최대한 감독에게 맡기면서 제주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선 승점을 기록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김 단장은 제주의 전력을 더할 선수 보강 계획도 꺼내놨다. 그는 "남 감독의 축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검증된 공격수, 주민주 선수 중엔 영입했다"며 "선수 중에 일부 부상자가 있어 몇몇 포지션을 감독과 논의해 보강할 계획"

"(제주로 연고지를 옮긴 뒤) 10년 넘게 관중이 많을 때도, 작년처럼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다. 프로축구가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된다면 관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 브랜드를 가지 있게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제주의 유일한 프로구단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김 단장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좋은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게 구단의 목표"라면서 "어떤 것들이 제주도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제주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새 도전을 앞둔 제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는 유독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성적 향상은 물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이도록 하겠다. 제주 팬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황의조, 3개월 만에 득점... 시즌 4호골

전반 10분 헤딩으로 선제골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에서 활약하는 공격수 황의조(28)가 리그양(1부)에서 석 달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황의조는 6일(한국시간) 프랑스 브레스트의 스타드 프랜시스-르 블레에서 열린 2019-2020 리그양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0분 선제

골을 터뜨렸다. 1골 1도움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지난해 11월 4일 낭트와의 12라운드 이후 3개월 만에 터진 골이다. 이번 시즌 보르도 유니폼을 입고 '유럽파'가 된 황의조는 이날 득점을 포함해 리그양에서 4골 2도움을 올렸다.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

한 황의조는 경기 시작 10분 만에 0-0 균형을 깨뜨렸다. 코너킥 이후 니콜라 드 프레빌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황의조는 번쩍 뛰어올라 헤딩 슈트로 마무리했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에도 황의조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으나 추가 골로 이어지진 못했다. 전반 15분엔 페널티 지역 왼쪽을 파고들어 슈팅했지만, 앞으로 나온 상대 골키퍼 라르소너르 골키퍼가 몸을 날려 잡아냈다.

후반 5분엔 드 프레빌의 크로스를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쪽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이번엔 골대를 맞은 공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황의조의 선제골을 후반까지 지키던 보르도는 후반 23분 상대 중앙 수비수 장-샤를 카스텔레토의 퇴장까지 나오며 승리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후반 35분 수비수 로리스 베니토의 자책골이 나오며 1-1로 비겼다. 승점 31을 올린 보르도는 리그 12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홍유라' 민유라-이튼 조의 연기 6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아이스댄스 리듬댄스에 출전한 대한민국의 민유라와 대니얼 이튼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민유라-이튼 조는 총점 64.38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세우며 8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